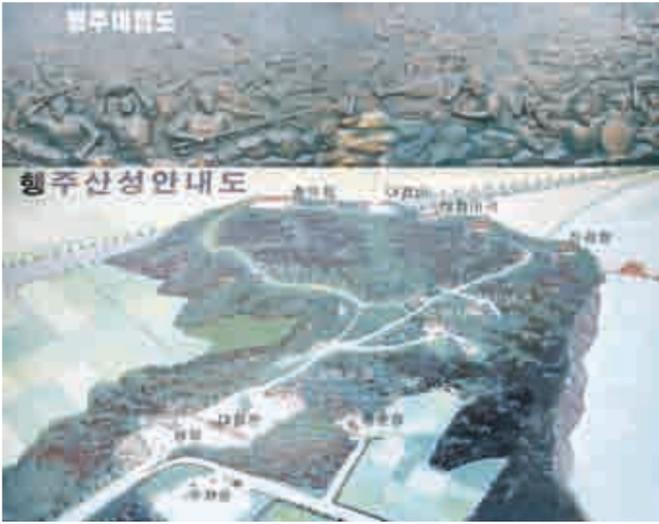


壬辰倭亂과 幸州大捷 ⑤

安東權氏 耆老會長 權 貞 澤 (忠莊祠 祭奠委員)



의 동남방 3km 지점에 해발 124.8m의 대덕산이, 동쪽 2km지점에는 해발96m의 奉大山이 있으며 북쪽으로는 해발 126.8m의 大德山이, 동쪽 2km지점에는 해발96m의 奉大山이 있으며 북쪽으로는 해발30~50m 내외의 加羅山 보르메 산 등의 나지막한 아산이 위치해 있다. 유적의 동북방 이들 아산을 제외하면 넓은 들이 펼쳐져 있고, 유적이 있는 덕양산에 정상에 올라서면 한강 이남의 현 강서구 일대는 물론 북쪽으로 고양시일대가 한번에 展望되며, 사방으로 시야가 막힘이 없어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목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유리한 지형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幸州산성은 천연적인 요새로 갖추고 있는데 조사결과 이 산성이 임진왜란이 있기 훨씬 이전 통일신라시대의 初築된 것으로 밝혀져 한강유역의 무수히 분포한 산성들과 함께 중요한 방어요새의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 된다.

3. 幸州산성의 構造 및 特徵

산성은 해발 124.9m 의 덕양산 정상을 동쪽 끝으로 하여, 해발 70~100m에 걸치는 능선을 따라 성벽을 쌓은 이른바 터모식(山頂式)산성이다. 성의 평면 형태는 방형에 가까운 부정형이며 동서로 약간 긴 형태를 하고 있는데 성벽의 총연장은 1km가량 된다. 산성의 남쪽과 동남쪽은 한강과 창릉천이 둘러 흐르고 있어 자연적인 壕자의 형태를 하고 있으나 성의 북쪽 방면은 몇 개의 낮은 아산을 제외하고는 넓은 들이 펼쳐져 있다.

토성의 형태를 알 수 있는 산성이 위치하고 있는 덕양산 정상 의 대접비유계소에서부터 忠莊祠에 이르는 약450m에 달하는 구간인데 성벽 築造方法은 구간별로 차이가 있다. 우선 대접비유계소에서부터 약 166m 에 달하는 구간은 흙을 다져 쌓은 관측토성으로 현재 土城壁이 비교적 잘 남아 있는 곳이다. 성벽축조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자연적으로 능선을 이르고 있던 생토암반을 평탄하게 정리하고 성내북쪽에 대략 30cm크기의 다듬은 돌로 基石石列을 쌓고, 성의 북쪽은 70~90cm간격으로 지름20cm내외의 기둥을 수직으로 세우고 있다.

그리고 이 期初右列에 기둥사이 즉, 성벽 중심부는 5~10cm두께의 점토와 산흙을 겹겹이 다져쌓은 版築工法을 사용하여 築造하였는데 이 관측토 가운데 기와파편을 수평으로 깔아서 흘러내림을 방지하고 있다. 이 기간에 城壁基底層 폭은 6.6m에 달하고 높이는 2.8m성벽 정상부의 폭은 2~3m 가량 된다.

한편 이 관측성벽의 외부는 성내외부 모두 계단상의 모양으로 깎여 있으며 그 위에 마사 토가 섞인 적색 점토가 덮여 있는데, 적색 점토층이 두께는 30~50cm가량 되며, 관측성벽의 계단상의 지형으로 깎여있는 점으로 미루어 관측성벽이 자연히 흘러내린 후 부분적으로 깎아 내고 적색 점토층으로 복토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호에 계속)

의 공격이 점점 거세짐에 따라 수세에 물리게 되었다. 더욱이 이북남의 군사들마저 견디지 못하고 후퇴하게 되자 정담은 고립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때 정담의 부장이 일시 후퇴를 건의하였지만, 정담은 “차라리 적병 한 놈을 더 죽이고 죽을지 언정 차마 내 몸을 위해 도망하여 적으로 하여금 기세를 부리게 할 수는 없다. ”고 말하고 죽을 힘을 다해 싸웠다.

이 전투는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가장 격렬했다. 해가 저물자 적도 공격을 멈추고 철수하려 했는데 정담의 진중이 화살이 떨어져 동요한다는 첩보를 듣고 최후의 공격을 감행했다.

4면에서 겹겹으로 포위하여 공격해 오자 정담의 군사들은 견디지 못하고 모두 흩어져 도망가게 된다. 이 전투에서 정담과 정담의 종사관 이복, 비장 강운·박형길을 비롯하여 김만령(해남)·김안(정읍)·김진태(정읍)·이경주(정읍)·김익웅(남원)·박석정(김제)·박정영(김제)·안진(김제) 등이 최후까지 싸우다 순절하였으며 해남현감 변응정은 중상을 입었다. 다만 황박과 이복남은 후퇴하며 안덕원安德院(지금의 전주시 우아동)에 진지를 구축하고 왜적의 진출을 막았다.

(다음호에 계속)

(1면에 이어)

공민왕 시해사건과

창화공 묘소를 한씨가 모신 사연

추밀공과 창화공 증좌집안 권병선씨는 이것을 ‘공민왕시역사건(1374)’을 통해 설명했다.

고려사 등을 보면 공민왕은 사랑하는 노국공주가 죽고, 신돈을 통한 개혁정치가 물거품이 되자 열기적인 성 행각을 벌인다. 바로 남색(男色)이었다. 왕은 김홍경이라는 충신(節臣)을 사랑했고, 김홍경을 통해 자제위라는 기관을 두어 미발의 귀족자제들을 선발했다. 공민왕은 자제위 홍륜 등과 난잡한 관계를 맺는 장면을 문틈으로 엿보기도 하고, 익비의 성행위를 두려웠다.

그런데 1374년 9월1일, 왕은 내시 최만생으로부터 익비의 임신사실을 보고 받는다. 그러자 왕은 최만생에게 “후사가 없는 터에 잘 된 일”이라면서 은밀하게 물었다.

“누구의 씨인고?”

“홍륜이라 합니다.”

“내일 홍륜의 무리를 죽여 입을 단게 할

것이다. 너도 이 계획을 아니 마땅히 죽을 줄 알라”

밀고했는데 도리어 죽을 운명이라니. 두려움에 떨던 최만생은 홍륜 등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홍륜 일파는 그날 밤 술에 만취한 공민왕을 살해한다. 그런데 다음날 ‘전세’가 역전된다. 친원파인 이인임 등이 홍륜과 이 사건에 연루된 자제위 권진과 한안 등을 죽였다. 물론 공민왕의 비참한 최후와 관련, 배후세력이 있다는 주장도 많았다. 자객이 침입해 왕을 시해한 뒤 자제위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설과, 이른바 친원파의 음모라는 설 등이다. 역사적 진실이냐 어떻든 이때 죽은 권진(權鎭)은 권준(權準)의 증손자이다.

그 사건으로 별문지화의 위기에서 권씨 집안이 뿔뿔이 흩어질 때 권준 할아버지의 제사를 내외손 간인 청주한씨 집안(한수)에게 부탁했을 것이다.

추정컨대 청주한씨 가문이 내외손 간인 권준의 제사를 지내주다가 한수의 아들 한상질(1400년 사망)의 무덤으로 오인했다는 것이다. 무덤 앞에 서있는 한상질의 비석은 1700년대에 세운 것이다.

추밀공과 저계종중 묘원건립 고유제 봉행

추밀공과 저계종중(회장 권중달)은 지난 5월 23일에 동 묘원에서 고유제(告由祭)를 거행하였다. 원래 인천시 검단지구에 있었던 선산이 인천광역시에 편입되어 개발됨에 따라서 2년전부터 김포시 하성면 양택리에 새로운 묘원(墓苑)을 건설하여 공사가 끝났

기 때문이다.

새로 건설된 묘원에는 태사공 후 17세인 역승공(驛丞公) 휘(諱)저(紘)이후로 27세까지 27명의 선조 유해의 이장을 완료하였고, 1500기(基)의 유해(遺骸)를 봉안할 수 있는 남굴당과 자연장지를 마련하여 종중묘원

雲谷書院誌

(은곡서원지)

(지난호에 이어)

순조(純祖) 2년 임술년(1802)

이때 산장을 권구환(權龜煥)으로 하고 유사는 권준원(權宗源)으로 하였다. 그리고 오금원(吾琴員)의 논 3두락을 매입하여 만일의 경우에 제물을 장만할 자비(資備)로 삼고 규례를 의정하여 본성인(本姓人) 가운데 인수(印號)를 띠고 나온 자가 그 관직 현황의 풍부하고 박함에 따라 위토를 사서 헌납하는 일을 준행해야 한다는 뜻의 완의(完議)를 성문화(成文化)하였다.

순조(純祖) 2년 임술년(1802)

순조(純祖) 2년 임술년(1802) 2월에는 산장을 권종락(權宗洛)으로 하고 유사를 권중보(權宗溥)로 하였다. 그리고 빈암원(賓巖員)의 논이 목게 되어 이를 팔아 별소(別所)에 맡겨서 이자를 길러 토지를 대신하게 하였다.

순조 11년 신미년(1811) 3월에는 산장을 권병수(權秉洙)로 하고 유사를 권치발(權致發)로 하였다. 이해 윤3월 4일에 사조암(思祖巖)의 폭포 언덕 끝에 유연정(悠然亭)의 기둥을 세우고 들보를 올렸

다.

5월 7일에는 주사(廚舍) 3칸의 기둥을 세우고 들보를 올렸으며 9월에 두 공사를 마쳤는데 이 공사의 성조도감(成造都監)은 권달환(權達煥)이, 회계도감(會計都監)은 권철환(權徹煥)이 맡았으며 별임(別任)은 권중식(權宗湜)이었다.

이때 유연정의 상량문(上樑文)을 청안인(淸安人) 감역(監役) 이수인(李樹仁)이 지었는데 거기에서 ‘사당이 이미 이루어지고 오르내리심이 엄숙하니 정연하고 풍성히 차린 제물을 실천하느니 의례에 허물됨이 있을 수 없으나 다만 이 시내와 산의 기이한 것에 만약 때를 기다려 비밀히 아껴둔 바가 있다면 어찌 그 같무린 바를 점유하는 제도로서 아직도 거기에 올라 임하는 것에 미비함이 있던 말인가.

예의를 강(講)하고 재속(齋宿)하는 거처는 법도대로 정돈되어 있지만 정신을 편안하게 하고 즐기며 완상(玩賞)하는 것 춤에는 결합이 있는 것이 아깝지 아니한가.

물력(物力)이 박약하니 자연스레 사람의 하는 일이 변천되고 나아가 풍경을 보

하지만 철석같이 조상 묘로 여기고 제사를 모셔왔으며, 어렵사리 발굴까지 허락해준 청주한씨로서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다. “우리 가문인 한안(자제위)이라는 분도 공민왕 시해사건 때 피살되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권씨 제사를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한병철 청주한씨 문열공파 종친회장)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법원은 조사단의 발굴 보고서를 토대로 이 무덤의 주인공은 ‘권준’이라는 ‘역사관결’을 내렸다. 권준의 묘지석이 발견되고, 유물상황이나 고려풍 벽화의 형태 등을 보아 틀림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청주한씨 측은 다시 발굴조사 보고서(국립문화재연구소 펴냄)가 잘못됐다면서 다시 소송에 들어갔다. ‘역사재판’에서 이번에는 ‘고고학재판’을 벌인 것이다. 재판은 2심까지 모두 기각되어 청주한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결국은 권씨 측이 승소했다.

지금도 창화공 묘소 앞에는 한상질의 묘비가 서 있어 역사의 아이러니를 실감케 하고 있다.

(자료제공 : 권병선 창화공회장)

으로서의 규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날 고유제에는 동 종중의 권중달 회장을 비롯하여 권홍규 전임 회장 등 40여명의 종원들이 참석하였다. 날로 장지(葬地)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종중의 묘원 건립은 종원들의 장지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종원들이 한 곳으로 성묘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자연스럽게 종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권중달 회장>

고서는 헛되이 포기하니 그 지령(地靈)의 비웃음에 오름을 어찌지 못하더니 필경은 후예의 근로에 힘입고 또한 세월의 좋은 때를 만나 바로 명궁(明宮)에서 몇 발짝 되는 곳에 별도의 헌당(軒堂) 3칸을 다시 창건하되 거북 등에 짐을 처서 터를 잡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깊이히 취할 곳을 청하니 연하(煙霞)가 자욱한 승경(勝景)에 뒤지고 앉은 좌향이 알맞아 사람의 묘사(謀事)가 아주 좋은데 이미 공장이의 기예로 기둥과 들보와 서까래가 갖추어지되 각기 구구(規矩)와 승묵(繩墨)에 맞추어 효험을 발하니 진실로 안개로 문호(門戶)를 만들고 구름으로 창을 내는 것과 같아 한쪽으로 푸른 병풍산을 대하는 화동조영(畫棟彫楹 : 채색 용마루와 아로새긴 기둥이라는 뜻으로 화려한 집을 가리킨다.)이 여러 자[尺]로 깊고 밝은 폭포의 웅덩이를 굽어보게 된 것이다. 좋은 계절 봄가을에 목욕재계(沐浴齋戒)하고 나서 아침저녁으로 올라가 관람하는 곳이 있는데 하늘이 이 세상 밖의 경계(境界)를 빌려주어 경치는 더욱 아름답고 사람은 거울 속의 호수와 산(山)에 앉아 가슴이 차차로 상쾌함을 깨달으니 누가 이 누관(樓觀)을 일러 다만 한가롭게 거처하는 곳이라 할 것이냐고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의병 권중해의 의사상

안동권씨대종원 사무총장 모집

안동권씨대종원은 사무총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희망자는 연락바랍니다.

- 조건 및 제출서류 -

- 년 령 : 60세~75세
- 컴퓨터, 한문 및 기사집필 : 가능
- 거주지 : 서울시 및 인천, 경기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사진
- 연락처 : 대종원 서울사무소 전화 02-2695-2483/4
- 소 재 지 :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2길 11(2층)(우 : 130-820)
- 팩 스 : 02-2695-2485

안동권씨대종원 총재

권율과 전라도 사람들 ⑩

▣ 김 영 현 (광주북구청 문화관광과장)

(지난호에 이어서)

6월 말경 아군은 김제군수 정담鄭鎭과 나주관군 이복남李福男, 동북현감 황진, 해남현감 변응정邊應井 등을 북병장으로 삼아 응치를 사수케 했다. 이어 익산(함열)사람 전 만호 황박黃璞이 군사 2백여 명을 모아 의병장이 되자 이들을 돕도록 조치했다. 「난중잡록」 또 전주사람 전전적 이정란李廷鑑을 전주부성 수성장으로 임명했다.

전투상황

응치에 도착한 북병장 정담과 이복남, 의병장 황박 등 지휘부는 지세와 적정을 살피고 목적을 세우고 진지를 구축하는 등 방어태세를 갖추다.

김제군수 정담은 응치고개에 제3선을 치국 나주관군 이복남은 중봉에 제2선을 구축하고, 의병장 황박은 그 아래에 제1선을 치고 방어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고개 아래에서 정상까지 3선의 진지를 구축했던 것이다. 진안에 머물고 있던 1만여 명 「난중잡록」에 이르는 왜군 역시 전열

8월1일부터

새 우편번호 시행 안내

1. 변경내용(대종원 서울사무소 예) 02585

앞2자리 : 광역시도/중간자리 : 시군구/뒤 2자리 : 자치구내

2. 새 우편번호 찾는 방법

■ 인터넷 우체국 : www.epost.kr

■ 도로명 주소안내시스템(네이버, 다음 등) www.juso.go.kr

3. 대종원업무처리에 따른 공지

■ 현 대종원임원은 대종원에서 일괄 변경하여 발송합니다.

(고문, 총재단, 중무위원, 대의원, 파종회장, 종친회장)

■ 7월 이후 주소지 변경하신 분, 중보구독자 등은 변경사항을 대종원에 통보바랍니다.(잘못 통보하여 반송우편물이 다수)

※ 연락 문의

안동권씨대종원 서울사무소 담당 : 권범준 홍보부장

전화 : 02-2695-2483/4 팩스 : 02-2695-2485

E-Mail : ankwon2695@naver.com